

# 창 간 사

2011년 6월 18일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면서 고대하던 한국지리학회가 드디어 창립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창립선언문에서 천명한 의지를 한국지리학회지를 창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지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1일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인 조선지리학회가 창립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선학들과 후학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 지리학 관련 학문들의 지리학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잠식과 중등학교 지리교육의 대대적 축소와 그에 따른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위축이 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면한 한국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움직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구성원간의 극심한 내적 갈등으로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한국 지리학과 지리교육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학술단체를 창립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함께 한 사람들이 모여 한국지리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리학회는 당면한 한국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기존의 한국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원상을 회복하고, 미래 한국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인류가 20세기 후반에 추구하기 시작한 인간화, 세계화, 지방화 및 정보화는 이제 보편적 현실이 되어 있고, 기존 학문들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대 이래 정립해 온 학문의 기본체제는 물론 심지어는 정체성마저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리학회는 이러한 세계사적 대변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지리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진학과들과 대학원생들이 이러한 대처에 앞장서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창간되는 한국지리학회지는 한국지리학회와 기존 지리학과 지리교육 학회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당면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적 변혁들을 주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지리학회지는 외적으로는 지리학과 관련 학문 간의 연계와 균형, 그리고 내적으로는 지리학과 지리교육,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지리학 본질론과 지리학 방법론 간의 연계와 균형을 도모할 것입니다.

한국지리학회 창립과 한국지리학회지 창간이 한국 지리학과 지리교육 발전의 신기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한국지리학회 회장  
최원희